

# 새만금산단 활성화 '속도'

### 금속가공·섬유강화재 제조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유망 중소기업 잇단 등지... 250여명 신규 고용창출 기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 대규모 농생명용지 조성 등 입지 여건이 진일보하면서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새만금산단 단지 투자 활성화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은 28일 새만금 서울투자선진관에서 (주)태양합금, (주)신화이앤이, 청운글로벌팜스(주) 등 3개 기업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총 453억원 규모의 '생산 제조공장' 건립을 골자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맺은 3개 제조기업이 새만금에 등지를 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전기차 생산기지, 농생명용지 조성이 보다 구체화되고 전후방 연관기업들의 투자 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태양합금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철과 텅스텐을 합금하여 다른 금속재료를 절삭하는 고급 특수강 생산 중소기업으로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합금철 제조설비를 새만금산단에 설립하기로 했다.

(주)신화이앤이는 섬유강화복합재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부

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대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상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구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해수 조건에 적합한 구조물 섬유강화복합재 제조시설을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주)청운글로벌팜스는 작물에 비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완효성 비료 생산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생산제품 구매의향을 이미 확보한 비료생산 제조기업으로 새만금 인접 군산항 이용과 원활한 수출입을 위하여 제조시설을 새만금에 설립한다. 특히, 새만금에 대규모 농생명용지가 조성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전망됨에 따라 새만금산단 투자를 결정하였고, 공장 준공후 생산된 완효성 비료는 국내 시판과 함께 해외에 수출하게 되어 미래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앞으로 새만금산단에 이들 3개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25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활성화와 군산항의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해당 기업 대표들은 "미래 신성장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될 새만금에 투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전북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3개 중소기업의 새만금산단 투자에 감사하고, 조속히 공장이 설립돼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의 협력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3개 기업의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확대로 새만금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산단은 장기입대용지 66만㎡(20만평) 확보와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등으로 투자여건이 한층 개선되고 있다. 또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투자 문의와 투자협약(MOU)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도는 새만금청 등 유관기관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28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자동차산업 육성 R&D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 전북 자동차산업 R&D지원... 위기를 기회로

위기에 처한 전북의 자동차산업을 업그레이트하기 위해 마련된 R&D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는 등 기술개발을 통한 전회위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28일 전주 라마다호텔에서 '자동차산업 육성 R&D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방향과 자동차산업 R&D지원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상용차 예타사업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R&D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연구개발 수행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들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상용차 예타사업의 주요 내용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10

월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과 기존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8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이 지원사업은 공모과정에서 평균 25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146명의 일자리 창출과 220억원의 사업화 매출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군산시, 경제 활성화 지역건설 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건설 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28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는 군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촉진 및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군산시지회 고성식 회장, 군산대학교 김

형주 교수, 군산시 고용지원센터 백경남 소장, 민주노총 군산지부 임일수 지부장, 시청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동욱 부시장의 주재로 지역 건설 산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사업 발주 현황 자료 검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설업 동향 그리고 관내 건설자재·장비·인력 사용 현황

분석과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을 뿐 아니라 윤동욱 부시장은 "민간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공동 참여토록 유도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에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부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속집행 추진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기업과 협약을 통해 관내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북 대표축제 전년대비 방문객 40% 매출액 60% 증가

### 도, 빅데이터 분석사업 최종보고회 열어 대표축제 성과 등 분석

전북지역 빅데이터 분석결과 축제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분석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어 전 분야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증회실에서 개최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지난 4월 착수해 도내 14개 대표축제, 도시안전 취약지 및 빈집활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소상공인 현황 등 4개 과제를 진행했다. 도내 대표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3년간 축제 기간의 KT 통신사 데이터를 통한 방문객 추이를 측정할 결과 2019년 평균 방문객은 1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도 KB국민카드 데이터의 매출을 분석해 객관적 성과를 측정할 결과 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수와 매출액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축제는 김제지평선축제로 분석됐으며, 방문객 수는 군산시간여행 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매출액은 고창모양성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회의에서는 도내 축제 발전을 위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팸플릿 구비와 외국인 해설사 확대배치, 축제장 내 부스의 카드결제 가능 유무 표시, 축제 인근 맛집 개발 및 홍보, 방문객 집중구역에 대한 CCTV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도시안전 취약지 및 빈집 활용분석은 자체 도출한 CCTV 취약지수와 범죄취약지수 등을 이용해 도내 시군의 평균 96개 CCTV 최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도 진행했다.

CCTV 최우선 설치 필요 최다 시군은 완주군 347개소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 등의 초·중등학교, 아파트, 공공시

설 부근에 주로 분포했다. 처순위 시군은 익산시 244개소 신흥동 산업단지, 신동 원광대학교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 도심 쇠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빈집은 시군 단위의 분포를 통해서 도시안전 취약지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빈집과 도시안전 취약지의 결합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거주지역, 이동경로 분석은 전주, 군산, 익산의 주거인구와 유동인구를 반영한 저상버스 노선도 도출로 이어졌다.

그 외 시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목적지별, 월별, 성별, 연령별 이용현황을 파악해 지난 11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현황분석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업종, 종사자수, 영업을 통한사업자 온라인 매출추이 등을 종합분석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편견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요'

### 전북도, 내달 2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전북도에서는 '제3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전주 객사 앞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은 1988년 개최된 '세계보건장관회의'의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UN에서 제정한 날로, 이 날을 전후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관련·차별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에이즈는 대부분 성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건전한 성생활 및 올바른 콘돔사용이 중요하며 식사하기, 악수하기 등 가벼운 피부접촉, 화장실 번기 공동사용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캠페인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주시보건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가 참여하여 '에이즈 편견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로 에이즈 관련 예방물품을

활용하여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법을 알리고, 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동참할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에이즈 상담, 무료익명검사, 올바른 콘돔사용 안내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에이즈는 무엇보다도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한편 감염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